

허리가 주저앉아도 중심 잡아준 '불혹의 해결사'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13> 외야수 최형우

“선수로서 인생이 끝나기 전 한 번 더 우승을 이뤘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마무리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기록을 보면 화려한 활약은 아니었지만 올 시즌에도 KIA타이거즈의 승부처에서는 언제나 최형우의 존재감이 발휘됐다. 그렇게 그의 별명은 ‘불혹의 해결사’가 됐다.

최형우는 올해 정규시즌 116경기를 소화하며 타율 0.280(425타수 119안타), 22홈런, 1도루, 109타점, 67득점을 기록했다. 장타율은 0.499, 출루율은 0.361이었다.

지난해 정규시즌 121경기에서 타율 0.302(431타수 130안타), 17홈런, 81타점, 64득점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타율에서는 감소한 수치를 보였지만 홈런과 타점, 득점은 모두 증가했다.

최형우가 생산한 109타점은 김도영

정규시즌 22홈런… 팀 내 3위 김도영과 팀 내 최다 109타점 KS 5차전 동점 발판 솔로포 “선수 인생 마무리 향해 순항”

과 함께 KIA에서 가장 많았고, 22홈런은 김도영(38홈런)과 소크라테스 브리토(26홈런)에 이어 세 번째였다. 40대의 나이에도 녹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활약이었다.

특히 최형우는 승부처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그는 4월9일부터 6월6일까지 선두를 질주하던 KIA가 잠시 2위로 내려와 있던 6월12일 문학 SSG전에서 정상 재탈환의 중심에 섰다.

최형우는 이날 경기 0-5로 뒤진 5회초 2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5-5로 맞선 6회초 2

사 1·2루에서는 역전 적시타를 때렸다. 이어 9-5로 앞선 7회초 2사 2·3루에서는 썩기포를 터트리며 12년 만에 6타점 경기를 펼쳤고, KIA는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

또 6월14일 수원 KT전에서는 0-0으로 맞선 1회초 2사 1루에서 선제 투런포를 터트렸고, 4-0으로 앞선 2회초 1사 만루에서는 싹쓸이 2루타를 때린 뒤 8-0으로 앞선 3회초 2사 1·2루에서는 적시타를 때리며 이를 만에 다시 6타점 경기를 만들어냈다.

독주 체제 구축에도 최형우의 역할이 있었다. 2위 LG가 3.5경기 차로 추격할 상황에서 잠실 3연전을 떠난 가운데 첫 맞대결이었던 7월9일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1회초 1사 2루에서 적시타를 때렸다.

이어 5-2로 앞선 1사 만루에서는 우월 홈런으로 그랜드슬램을 장식하며 싹쓸이 승리의 발판을 닦고, LG와 격차를 6.5경기로 벌렸다.

이 만루홈런은 KBO 리그 국내 선수 중 역대 최고령 기록이 되기도 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후반기에 빛났다.

1차전에서 3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최형우는 2차전에서는 1-0으로 앞선 1회말 1사 3루에서 적시타를 만들어낸 뒤

김선빈의 적시 2루타에 홈을 밟았고, 6-1로 앞선 5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2루타를 날리며 기회를 창출한 뒤 김선빈의 희생 플라이에 득점을 추가했다.

이어 3차전에서 0-2로 뒤진 6회초 2사 2루에서 적시타를 때리며 추격점을 만들었고, 4차전에서는 허리 통증으로 결장했으나 5차전에 전력이 복귀해 1-5로 뒤진 3회말 1사 1·3루에서 추격 적시타를 만든 뒤 2-5로 뒤진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추격 솔로포까지 터트리며 역전승의 발판을 닦았다.

최형우는 한국시리즈 우승 직후 “선수 인생이 끝나기 전 우승을 한 번 더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 한국시리즈가 될 수도 있기에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 5차전을 하면서 허리 상태가 다시 안 좋아져서 6차전을 못 땄 것 같다고 했는데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다 없던 일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선수 인생의 마지막 우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엔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우승을 하겠다”며 “선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 한 해 동안 함께 고생해 준 후배들도 정말 대견하고 멋지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타이거즈 최형우가 지난 10월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 2-5로 뒤진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추격 솔로포를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도 지배했다

김도영 대상 포함 3관왕 ‘우뚝’ 정해영·이범호 감독도 시상대

‘슈퍼스타’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KBO 시상식과 리얼글러브 어워드, 은퇴 선수의 날, 동아스포츠대상에 이어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에서도 가장 높은 상을 거머쥐었다.

조아제약(주)과 일간스포츠는 3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임페리얼 홀에서 ‘2024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을 개최했다.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은 총 15개 부문에 대한 수상을 진행하며 2009년 시작돼 올해로 16회 째를 맞았다.

김도영은 3관왕에 오르며 올해 맹활약을 인정받았다. 그는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에서 가장 큰 상인 대상을 차지하며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0만원을 수여받았다. KIA 소속으로 대상을 수상한 것은 2017년 양현종 이후 7년 만으로 타자로서는 2009년 김상현 이후 15년 만이다.

또 김도영은 팬캐스트 셀럽 인기상과 올해의 팬덤플레이어상까지 석권했다. 특히 팬덤 플랫폼 ‘FancastCeleb’을 통해 팬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한 팬캐스트 셀럽 인기상에서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 합산 결과 78.12%의 압도적 표심을 얻었다.

김도영은 시상대에 올라 “이렇게 큰 시상식에서 대상까지 받을 수 있어 영광이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받은 상이라서 더욱 영광”이라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최준영 대표이사님과 심재학 단장, 이범호 감독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 같이 뛰어준 선배님들

동료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부상 없이 풀타임을 뛰는 것이 목표고, 다른 것을 정하라고 하면 우승이 가장 크다. 아마추어 때부터 꾸준히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것을 목표로 뛰어왔다”고 강조했다.

김도영에 이어 정해영과 이범호 감독, 심재학 단장도 시상대에 올랐다. 정해영은 최고구원투수상의 주인공이 됐고 이범호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심재학 단장은 프런티어를 수상한 KIA를 대표해 수상에 나섰다.

또 KIA 응원단(에이팩스 커뮤니티)은 SNS 핫이슈상을 받았다. 이들은 올 시즌 삼진 아웃을 잡았을 때 추는 빠기 빠기 아웃송을 SNS를 통해 세계에 유행시킨 바 있다.

한편 최고타자상 구자욱, 최고투수상 원태인(이상 삼성), 최고포수상 박동원(LG), 최고야수상 송성문(키움), 코치상 이진영 타격 코치(삼성), 신인상 김택연(두산), 점프업상 손주영(LG), 컴백플레이어상 강백호(KT), 전반기중점별상 류현진(한화)·한국야구위원회, 스포츠도포도제닉상 황성빈(롯데)도 주인공이 됐다.

뛰어난 집중력과 지구력을 증명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조아바이톤-에이 상은 조병현(SSG), 팀에 활력을 불어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헤파토스 상은 나승엽(롯데), 차별화된 강점을 보여준 대표 선수를 뽑는 조아아르가닉맥스 상은 권희동(NC)이 수상했다. 한규빈 기자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3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임페리얼 홀에서 열린 2024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일간스포츠 제공

‘화순 출신’ 이용대, 세계배드민턴연맹 명예의 전당 입성

한국 선수 중 열 번째

화순초-화순중-화순실업고(현 전남기술과학고) 출신으로 2008 베이징 올림픽 혼합 복식 금메달과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복식 동메달을 수확한 이용대(사진)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BWF는 3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이용대와 중국의 천룽이 2024년 BWF 명예의 전당 현역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오는 9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 2024 갈라디너에서 천룽과 함께 현역식을 갖는다.

이로써 이용대는 박주봉(2001년)과 김문수(2002년), 정명희, 정소영(이상 2003년), 김동문, 라경민, 길영아(이상 2009년), 하태권(2012년), 방수현(2018년)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열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그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효정과 혼합복식 금메달을 합작하며 19세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고, 런던 올림픽에서는 고(故) 정재성과 남자 복식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포올에리크 회위에르 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은 “이용대와 천룽은 배드민턴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던 선수들”이라며 “코트 안팎에서 이들이 세운 업적은 정말 높은 수준이었다. 명예의 전당에 현역함으로써 이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